전법 일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참여하며 '지금 존재하는 이유' 화두 들다

군에서 전법활동 한지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첫 근무지인 경기도 연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광주, 경북 영천, 그리고 지금 세종을 거치면서 많은 도시를 다니며 활동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각 지역과 부대마다 특성이 있어 적응하고 정들만 하면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군승의 운명인 듯하다. 그래도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하고 전법활동을 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사찰에 가면 처음에는 경계하시지만, 대부분의 스님들께서 "젊은 스님이 와서 젊은 장병들 전법해주는데 많이 고마워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주신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찰 살림에도 장병들을 위한 간식 공양도 흔쾌히 내어주신다. 스님들의 자비행이 있기에 오늘도 전법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 소임 맡고 있는 32사단에서는 대둔산 지역 짜개봉 일대의 유해발굴작전이 한창 진행 중이다. 첫 소임지였던 5사단 지역에서 유해발굴하기 전 개토식과 영결식에 참석하여 종교행사만 집전을 했었다. 이곳은 달랐다. 유해발굴작전하기 전 개토식 종교행사 집전은 물론이고,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에 사단 전투참모단 간부들도 참석해야한다는 말을 듣고서 의아해 했다. '전투요원도 아니고, 유해발굴관련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굳이 해야하는건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녀와서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느꼈다. 유해발굴작전을 하기 위해 사단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대둔산 수락계곡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1시간 10여 분 정도 가파른 산에 오르니 짜개봉 지역에 다다랐다. 작전에 투입되기 전 유해발굴 팀장의 소개와 함께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6.25 전쟁 당시 적의 대침투작전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었다. 당시 국군은 9사단 주축으로 대둔산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충남도 전투경찰대 및 의용대와 함께 토벌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군과 경찰, 의용대, 지역주민 등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한다. 74년 전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많은 선배전우의 희생을 기리고, 차디찬 땅속에 잠든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유해발굴 작전에 참가하였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위로는 깨달음(보리)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교학과 학업에 매진하고 수행에 전념하였고, 현재는 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법하며 장병들의 지친 마음을 신앙의 힘으로 돌보고 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둔산 짜개봉 일대 선배전우들의 유해발굴작전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화두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가장 낮은 자세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며 회향하는 구도자가 되기를 서원하며 연재를 마치고자 한다.



수종 스님
육군 32사단 호국대원사 주지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⑨ 항상성의 개념

생명 지속의 항상성, '업'의 다른 이름

유별난 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지나면 서늘한 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면 추위가 유난을 떨 것이다.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 사이를 오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비에 속한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인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이 생명현상을 가능하게 한다. 개체 자신의 상태를 최적화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개체적 생명을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도 이 항상성은 추론된다.

내년에도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리니, 소란스런 봄바람의 수고로움은 끝내 멈추지 않으리.(明年更有新條在 惱亂春風卒未休, 〈선문염송〉, H76, 165a12)

계절의 일정한 순환은 기지개를 켜며 체온을 높이고 활동하다가 활동을 그치고 잠을 자는 동물의 낮과 밤에 따르는 체온의 변화와 일정하게 대비가 된다. 이렇게 항상성 개념은 지구 환경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기도 한다. 지구를 뭇 생명의 어머니로 바라보는 가이아(Gaia) 이론의 배경이기도 하다. 지구를 생명 유기체로 인식하도록 작동하는 항상성 개념은 현상계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체온조절 기능은 물론 섭식에 따른 혈당조절, 무더운 여름과 겨울의 찬바람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환경을 볼 수 있게 한다.

항상성이 생명과학의 이론이라면, 물리학에서는 관성(慣性, Inertia)의 법칙이 있다. 관성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한다. 자기의 속성을 유지하려는 동력에 해당하는 자성(自性)이야말로 관성력의 핵심이다. 항상성과 관성은 업(業, karma) 개념에 의하여 보충 설명될 수 있다. 범어의 동사원형 kṛ는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고'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처럼 무언가를 끌고 다니는 형상이다. kṛ는 문장에서 kar로 활용되며, 명사로 전환될 때 karma로 변형된다.

業 개념은 항상성과 관성과 비견될 때 비로소 선명해진다

업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의 하중을 책임지는 상속성을 의미한다. 〈종경록〉은 업력을 관(慣)과 연결하여 마음(心)으로 일관(貫)하는 항상성과 그 지속의 관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호로 풀이하고 있다. '관성의 습기는 되풀이 행하여 숙달된 기운으로 인하여 수면이라는 잠재의식에 따르는 것이며 집착의 씨앗'(慣習, 習氣隨眠, 卽執種子)이라고! 이처럼 업 개념은 항상성과 관성과 비견될 때 선명해진다. 사람의 마음자리를 곧장 가리키는 직지인심의 선적 경지는 현대의 생명과학이나 물리학의 입장으로 디플레이션된 것이다.

생명의 지속을 위한 항상성, 물질 현상을 유지하는 관성, 시간의 발자취를 영속하는 까르마로서의 업, 이들은 동일한 현상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다른 이름들이다. 부처와 도는 얼마나 다른가? 이에 대하여 마조 선사는 '도란 손을 펼치는 것과 같고, 부처는 주먹을 쥐는 것'(佛與道相去多少 馬祖答云 道如展手 佛似握拳)이라 답한다. 이런 점에서 각 이름의 기표(記票)적 차이를 불식하고 그 매끈거리는 표면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면, 의미 그 자체인 기의(記意)에 도달할 수 있다.

붓다의 깨달음은 부처님 당체(當體)를 지시하는 법신불이기도 하고, 깨달음으로 대체 표현되는 도의 당체는 진리 그 자체이다. 이제 가을이 무르익는 시간이다. 〈선문염송〉은 가을 달빛의 서늘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한 길(一丈)을 설명하는 것은 한 치(一寸)를 행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이 가운데 뜻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달빛이 서늘함을 알리라. (說得一丈 不如行得一寸 會得箇中意 方知月色寒, H76, 173c11-12)

세상 시끄러운 말들에 귀 기울이다가 물들었다면 귀를 씻어야 한다. 창밖을 비추는 달빛에 마음을 헹구어야 하기 때문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반려견 선명상축제, 반려인 포교의 시작

청명한 가을날 '반려견 선명상축제'가 열리는 남양주 봉선사로 향했다. 경내를 거니는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의 표정이 밝고 또 맑았다. 가을볕을 즐기며 명상의 시간을 갖고, 연지를 산책하고, 요가 테라피를 하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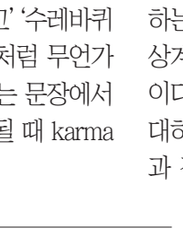
봉선사는 이번 반려견 선명상축제에 대해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선명상을 중심으로 반려견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 과거에는 단순히 집을 지키는 가축이었던 개가 오늘날에는 가족 구성원이 돼 우리 삶 속에 '반려견'으로 자리잡았다. 봉선사가 이날 진행한 '반려견 선명상축제'도 불교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시작이었을 것이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는 교구장 호산 스님의 의지가 컸다. 호산 스님은 봉선사 교구장으로 취임하며 십여 년 넘게 함께한 반려견 '쿠니'도 데리고 와 봉선사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날 축제에 동참한 반려인들은 "불교계가 동물을 소중한 생명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반려인 가구가 새로운 불교의 포교 계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펫케어' 분야는 반려견 천도뿐 아니라 템플스테이 같이 사찰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불교의 문턱을 낮추는 하나의 통로이다. 또 '펫로스' 경험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며 심신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반려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반려견들이 단순히 '가축'이 아닌 '반려견'이 된 것을 보면 우리가 각기 가진 '불성'이 공명(共鳴)한 결과가 아닐까?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찰나 실수로 부서진 어깨뼈와
무너져버린 고향의 가족

네팔노동자 바하두르씨, 가족 생계 위해 농장 · 공장일 등
수술 후 월세방 더부살이…남은 건 병원비와 빚 7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